

명량해전의 승리와 이순신의 통합리더십

제장명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 소장)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부 교수)

1. 명량해전의 배경

1597년 7월 16일 칠천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180여 척에 달하던 조선의 전선은 겨우 12척만 남았다. 그해 8월 3일 당시 백의종군 중이던 이순신은 다시 통제사직에 복직한 후 전라도 지역을 서진하면서 수군력 정비에 힘썼으며 8월 29일에는 진도 벽파진으로 진을 옮겼다. 이후 9월 7일에는 일본군선 13척이 공격해 오자 이들을 모두 물리쳤다. 당시 일본 수군은 7천여 명의 병력으로 1597년 8월 13일 하동현의 두치진에 상륙하여 일본군 좌군 주력과 합세하여 남원성을 함락한 후 좌군에의 예속을 벗어나서 하동현으로 돌아왔다. 그후 일본 수군은 좌군의 육상 침략전에 호응키 위하여 해로를 따라 진도 이서 지구를 침공기로 한 것이었다.

그해 9월 14일 진도 벽파진에서 병력 충원과 군비를 정비하고 있던 이순신에게 탐망군관 임준영(任俊英)이 일본군선 55척이 어란 앞 바다에 도착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어서 적의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쳐 온 김종결(金仲乞)은 지난 9월 7일에 있었던 벽파진해전에서 피해를 입은 일본군이 복수하기 위하여 조선 수군을 섬멸한 뒤 경강(京江)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보고받은 이순신은 9월 14일 당시 우수영 앞 해상에 머무르고 있던 피란선을 육지로 대피토록 지시하였다. 이는 곧 전투가 벌어질 시점에서 피란민들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조선 수군이 그곳에 유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튿날인 9월 15일 조선 수군은 진을 우수영으로 옮겼다. 그 이유는 명량이라는 천험의 요새지 특성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면 조선 수군이 선택한 전장(戰場)인 명량수로는 어떤 곳인가?

명량은 진도와 화원반도 사이에 있는 협수로인데 한국수역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곳이며, 어란포 근해의 마로해와 목포입구의 팔구포로 통하는 지름길이다. 이 수역은 대조(大潮) 시에는 최강유속이 11.6노트(knots)까지 달하고 있으며 창조류(밀물)는 북서쪽으로, 낙조류(썰물)는 동남쪽으로 6시간 주기로 흐른다. 특히 최협부에는 강렬한 조류가 격돌하여 소리를 냄으로써 울돌목이라고

도 부른다. 이러한 명량수로의 지형적 특성과 조류를 도시하면 다음 <그림 1>와 같다.



<그림 1> 명량 수로의 조류 흐름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협부에는 최강류가 흐를 경우 밀물일 때 9.9노트, 썰물일 때 11.6노트가 흐른다. 당시 조선 수군의 전선 속도가 3노트인 점을 고려한다면 최협부의 조류 속도는 전선 속도의 3배 이상이다.

그러면 명량해전이 발발한 정유년 9월 16일의 조류는 어떠했을까? 당시 명량수로의 조류는 음력 9월 16일을 양력 10월 25일로 환산하였을 때 오전 6시 38분경에 잠시 멎는 정조가 되고 이후 북서류가 시작되어 일본 군선이 해협을 통과해 우수영 앞바다로 진격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리고 8시 48분에 최강류가 흐르고 12시 57분에 동남류로 전류된 후 15시 3분경 최강류가 흐르고 19시 4분경 북서류로 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8시 48분경 북서류의 최강류는 9.7노트, 15시 3분경 남동류의 최강류는 8.4노트의 속도로 흐른다(이상의 데이터는 2008년 6월 국립해양조사원의 협조를 받아서 작성한 것이다.) 이를 표시하면 다음<표1>과 같다.

<표1>명량해전일 시각별 조류속도

일자	시각	유속(m/s)	유속(knots)	비고
1597년 10월 25일(음력	06시 38분	0.3	—	북서류로 전류
	08시 48분	5.03	9.7	최강류
	12시 57분	0.3	—	남동류로 전류

9월 16일)	15시 03분	4.36	8.4	최강류
	19시 04분	0.3	—	복서류로 전류

한편 당시 참전한 조일 양국의 수군 전력은 어떠했을까? 참전 척수가 사료에 따라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선조실록』에 수록된 이순신의 장계에 의하면 당시 조선 수군의 세력은 전선 13척에 초탐선 32척이었다. 아울러 당시 일본군의 전선은 총 200여 척으로 추정되며, 그중 명량수로에 진입하여 조선 수군과 접전을 벌인 일본 수군의 전선은 중선(관선) 130여 척이었다. 따라서 이때 진입하지 않은 적선 대선(안택선) 70여 척은 벽파진 쪽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2. 명량해전의 경과

이상의 수로 환경과 조일 양국의 전력을 염두에 두면서 당시의 해전 경과를 살펴본다. 『난중일기』 정유년 9월 16일 기사에 보면 “이른 아침에 망군이 보고하기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적선이 명량을 거쳐 곧바로 진치고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하였다. 이에 이순신은 여러 장수들을 불러 군령을 하달한 후 정박해 있던 배들을 이끌고 바다로 나갔다. 그러면 여기서 이순신이 휘하 함대를 이끌고 나간 전투해역은 어디쯤일까?



〈그림2〉 기존 명량해전 상황도

기존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볼 때 해전장소로 명량수로의 최협부 근처와 그 바로 뒤쪽의 해상을 들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 해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면

조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이를테면 이순신의 대장선이 떠 있는 곳은 명량수로의 최협부로서 가장 유속이 빠른 곳이다. 따라서 당시 3노트에 불과한 선속보다 빠른 조류를 거슬러 그 지점까지 노를 저어 갈 수도 없다. 동시에 그 뒤에 포진한 조선 수군의 기타 전선들도 마찬가지로 전선 속도보다 빠른 역류를 타고서 진을 칠 수는 없다.

한편으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수중 철쇄를 설치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철쇄를 사용했다는 주장들은 당대 사료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선 수군 함대가 나가자 일본군선 130여 척이 조선 함대를 에워쌌다고 한 기록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내용이 당대의 사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계에서는 철쇄 가설을 전후 20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손들이 선대를 전쟁영웅으로 꾸미는 가운데 발생한 설화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한다.



〈그림3〉 필자 추정 명량해전 상황도

필자는 〈그림3〉과 같이 양도를 최전방으로 하여 포진한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이곳이야말로 당시 조일 양국의 전략에도 부합되고 『난중일기』의 기록에도 합치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당시 일본의 전략이라는 것은 서해상으로 진출하는 것이 1차 목표였다. 마찬가지로 조선 수군 역시 일본 수군을 명량수로 넘여가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데 전략적 목표가 있었다. 즉 이순신이 올린 장계에 “이제 만일 수군을 전패한다는 것은 적이 만 번 다행으로 여기는 일일뿐 더러 충청도를 거쳐 한강까지 갈 것이라 그것이 신의 걱정하는 바입니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이순신의 입장에서 일본군이 서해상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해전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일본군의 입장에서 조선 수군을 격멸시킨 후 전라도를 확실하게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럴 경우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은 접전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조선 수군으로서는 일본 수군을 섬멸하는 방법을 강구했을 것이고, 가장 승리할 수 있는 포진 지점으로 <그림3>의 장소가 적합했을 것으로 본다.

어쨌든 탐망군의 보고를 받은 이순신은 휘하 장수들을 소집하여 사전 약속된 전술을 강조한 후 전투해역으로 진입하였다. 이때 조선 수군 지휘부는 적선이 조선 전선의 10배 이상 되는 대규모이므로 피란선 100여 척을 동원하여 후방에서 포진하도록 하였다. 일종의 의병전술(疑兵戰術)인 것이다. 아울러 휘하 13척의 전선 중 12척은 명량해협을 가로질러 일자진(一字陣)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순신 대장선은 최선봉에서 일본 함대와 접전을 벌였다.

조선 수군이 일본군과 접전을 벌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8시 전후로 추정된다. 따라서 일본함대가 벽파진에서 출발하였을 때 망군이 이를 발견하고는 일본군의 출현사실을 알린 것이다. 이순신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는 함대를 이동하여 전투 해역에 포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군의 경우 명량수로의 전류시각을 고려하여 전일에 벽파진 쪽에 미리 와서 유진한 후 아침 일찍 북서류에 편승하여 이동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명량해전 당일의 전투 상황을 『난중일기』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수군이 포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본 군선 130여 척이 순류를 타고 명량수로를 넘어와 조선 함대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이러한 적의 막강한 세력에 질린 휘하 장수들은 조수(潮水)를 따라 자꾸만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전투 초기에 휘하 전선들은 뒤로 물러난 가운데 이순신 대장선만 선봉에서 홀로 버티면서 화포를 쏘면서 교전할 뿐이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이순신의 휘하 장수 호출에 따라 거제현령 안위(安衛)의 전선이 가장 먼저 도착하였다. 여기서 조류가 북서쪽으로 흐르는 가운데 안위의 전선은 어떻게 이순신 대장선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당시 명량수로 가장자리에는 와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노를 저을 경우 충분히 이동이 가능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경우를 상정한다면 전류(轉流) 시점을 맞아서 조류의 흐름이 매우 약해졌을 때 역방향 이동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아진다. 이 경우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안위의 전선과 이어서 도착한 중군장 김응함(金應誡)의 전선이 적진 속으로 돌입할 때에 일본군 장수가 탄 전선이 휘하 2척과 함께 안위의 전선을 공격하였다. 적선 3척이 안위의 전선에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위태로운 광경을 연출하였다. 안위 배의 군사들은 등선하려는 일본군을 맞아 몽둥이와 장창(長槍), 수마석(水磨石) 덩어리 등으로 적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이어서 통제사의 대장선(大將船)과 녹도만호 송여종(宋汝悤), 평산포 대장(代將) 정응두(丁應斗)

의 전선이 잇달아 협력하여 적을 섬멸하였다. 이때 바다에 빠진 일본군 장수를 항왜(降倭: 항복한 왜군) 준사(俊沙)가 ‘마다시’라는 장수임을 보고하자 그를 건져 올려 효수하여 적에게 보였다. 이에 적의 기세가 크게 꺾였다.

이후 13시경에는 조류가 남동류로 바뀔으로써 조선 수군에게 유리한 형세를 보였다. 조선 수군은 닻을 내려서 전선을 고정시킨 후 계속 대포를 쏘아 적선을 격침시켰다. 한편 15시가 넘어서는 조류가 최강류로 흐르고 북풍도 강하게 불어와 바람을 이용하여 화공전을 전개하였다. 이후 일본 군선들이 조류를 따라 수로 입구로 완전히 물러나면서 해전은 종료되었다.

해전 결과 일본 수군의 전선 31척이 완전히 분멸되었으며, 다수의 전선이 파괴된 채 일본군은 남해상으로 후퇴하였다. 이 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전선은 1척도 분멸되지 않았다. 다만 근접전을 수행함으로써 수군과 의병을 포함하여 다소의 인명 피해는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일본군 장수 중 쿠루시마(來島通總)가 사망하고 토도(藤堂高虎)를 비롯한 일부 장수들이 부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3. 조선 수군의 전술과 승리 요인

조선 수군이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일본 수군을 물리친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전선과 무기의 위력을 들 수 있다. 명량해전 당시 조선 수군이 보유한 전선은 판옥선 13척과 초탐선 32척이 전부였다. 이중 전투력을 갖춘 전선은 판옥선 13척 뿐이었다. 반면에 일본 전선은 130여 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수군의 판옥선은 1척도 분멸되지 않았고 일본 전선만 31척이 분멸되었고 많은 전선이 파괴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 수군의 전선과 무기의 위력이 일본의 그것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명량수로에 진입한 일본 군선은 관선(關船 : 세키부네)들이었으므로 관선보다 높고 견고한 조선의 판옥선 위로 올라갈 수 없었다.

다음으로 당시 조선 수군의 무기가 얼마나 위력적이었는가를 살펴보자. 당시 이순신 대장선은 지자(地字)와 현자(玄字)총통 등 화포를 쏘아 적선을 당파하였다. 당시 화포의 명중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근접해서 쏘는 화포의 명중률은 매우 높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 군선들의 경우 130여 척의 많은 군선이 참전하였지만 명량이라는 협수로에 갇힘으로써 전체 함대가 활동이 제한된 상태로 몰려 있었다. 이럴 경우 조선 수군의 화포 공격에 명중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비록 이순신 대장선 1척이 분전했지만 일본 군선이 감히 앞으로 돌진해 올 수 없었을 정도였다.

둘째, 수군 지휘관 이순신의 리더십이 뛰어난 점을 들 수 있다. 해전 당일 이

순신은 자신이 탄 대장선을 맨 앞에 포진시키고 그 뒤에 부하들의 전선 12척을 일자진으로 포진시켜 적을 맞았다. 이순신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여기서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산다.’고 전일 강조한 말을 직접 실천해 보인 것이다. 그 가운데에 이순신이 노린 효과는 두 가지로 생각된다. 한 가지는 일본 수군들과의 싸움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을 부하들에게 솔선하여 가르쳐 준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지휘관이 이렇게 분전하는데 부하들이 도망쳐서야 되겠느냐는 죄책감을 일깨워 준 것이다.

셋째, 조선 수군이 구사한 다양한 전술을 들 수 있다. 이것 역시 지휘관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지만, 조선 수군 자체의 전술 구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선 조선 수군이 진을 친 곳은 유속이 3노트 정도 흐르는 양도보다 북서쪽으로 뒤에 위치한 해상이었다. 이순신은 모든 전선들을 일자진(一字陣)으로 형성한 후 닻을 내리도록 하였다.

특히 조선 수군이 진을 친 일자진은 여러 가지 목적이 내재한 것으로 보아진다. 이를테면 일본군을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화포의 위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 수군의 전투 공간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적 대장선과 선봉선에 대한 집중공격으로 적군의 사기를 꺾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조선 수군의 일반적인 전술이었는데 이순신은 명량해전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 대장선을 집중 공격하여 대장선을 분멸시키고 적장 중 한 명인 마다시(馬多時)를 붙잡아 효시하였다. 이를 본 일본 수군은 사기가 크게 꺾여 전의를 상실할 정도였고 반면에 조선 수군은 전의가 크게 고양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일본군의 경우 그들의 주 전술인 등선백병전(登船白兵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것은 조선 수군의 판옥선이 높고 단단하여 등선하기가 어려운 점과 조류의 영향으로 인해 조선의 전선을 전(全) 방위로 포위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명량해전 2개월 전에 있었던 칠천량해전에서 일본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조선의 전선을 몇 척으로 포위하여 등선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명량해전에서는 이런 전술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패할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 조류의 영향에 의해 오후에는 명량수로 입구 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넷째, 의병들의 참전이다. 의병들의 경우 명량수로의 북서단 쪽에서 100여 척의 향선에 승선하여 조선 수군을 지원하였다. 이순신이 이들을 동원한 것은 원래 아군의 성세를 돋우어 적들을 기만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의병장의 경우에는 조선 수군의 진형을 뚫고 해협의 북서쪽 입구 쪽에 도착한 일본 군

선들을 맞아 직접 전투를 벌여 전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사시 전투행위를 포함하여 후방에 포진한 의병들의 주 활동은 조선 수군의 성세를 북돋우면서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임무였다.

예컨대 향선의 의병지도자 중의 일원이었던 오익창(吳益昌)은 본진과 피난선 단 사이를 왕래하면서 의곡(義穀)을 전달하고, 동과(冬瓜, 동아)를 공급하여 수군의 갈증을 풀어주기도 하고, 솜이불을 모아 물에 적신 다음 적의 철환을 막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많은 피란민들은 수군 지휘부의 적을 피하라는 명령에도 명량 인근지역을 떠나지 않고 군량이나 군복을 조달하거나 피란선을 이용하여 세력이 강하게 보이게 하는 등 응원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라도 해안지방 각처에서는 많은 의병들이 이순신의 막하에 와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거나 병참지원 등 수군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정규 수군의 활약을 도운 의병의 활동도 명량해전 승리의 주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병 활동들이 수군의 전력을 보강하고 해상작전을 뒷받침하여 명량해전의 승리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곧 이순신의 통합리더십이 발현한 결과인 것이다.

4. 명량해전 승리의 역사적 의의

명량해전의 승리는 당시의 전황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 해전의 승리로 인해 일본군의 승승장구하던 기세를 일시적으로 꺾음으로써 당시 조명 연합군의 대일본군 방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명의 지휘부에서도 크게 평가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통제사 이순신이 사소한 왜적을 잡은 것은 바로 그의 직분에 마땅한 일이며 큰 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인이 은단으로 상주고 표창하여 가상히 여기시니 과인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이순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다 흠어진 뒤에 전선을 수습하여 패배한 후에 큰 공을 세웠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그 때문에 약간의 은단을 베풀어서 나의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宣祖實錄』권93, 30년 10월 丁丑]

위의 기록은 명량해전의 전공을 축하하는 뜻으로 명의 경리 양호(楊鎬)가 이순신에게 은 20냥의 상금 외에 붉은 비단을 준 것에 대해 선조가 감사의 말을 하자 이에 대해 경리 양호가 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해 명군 지휘부에서는 명량해전의 승리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것은 서해가 뚫릴 경우 명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을 감안해서인지 선조는 명의 제독 총병부에 보내는 자문을 통해 적선

이 서해에는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명량해전 승리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명량해전의 승리는 이러한 일본군의 전쟁 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몇 가지 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칠천량해전에서 궤멸적인 피해를 입은 조선 수군이 겨우 수습된 전력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후 수군력 재건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이 해전에서 패했다면 조선 수군은 폐지되어 이후의 전쟁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 지 명약관화하다. 수군의 존폐가 이 해전에서 결정된 것이다. 아울러 조선 수군은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칠천량해전에서의 패배로 잃어버릴 뻔 했던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수군 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명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승리는 이전 해전에서의 승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전에 있었던 해전에서는 대부분 조선 수군의 전력이 일본군에 대등하거나 우세한 전력이었다. 그러나 명량해전에서는 조선 수군이 절대 열세한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은 명량해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셋째, 이전 해전에서는 조선 수군의 전력 구성원들이 주로 정규 수군 중심이었다면 명량해전에서는 의병도 다수 참전함으로써 민과 군이 협조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통합적 역량을 발휘한 해전임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전 해전에서도 백성들의 조력이 해전 승리에 기여한 바가 있었지만, 대부분 적정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군수물자 제공 등에 기여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명량해전에서는 연해민들이 탄 피란선 100여 척이 후방에 포진하여 형세를 북돋우면서 군수물자를 제공함은 물론 실제 전투에도 참전하였다.

넷째, 이 해전은 수군 지휘관 이순신의 리더십이 가장 돋보인 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선의 조직력에 의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수군의 특성이지만, 전력이 절대 열세한 상황에서는 지휘관 개인의 능력이 전투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 전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 숙달한 전기를 발휘하여 전투에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의 전력 발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임기응변과 융통성이 전승을 이끌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례가 바로 명량해전인 것이다. 통제사 이순신은 해전 준비과정에서도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해전 당일에도 선봉에 서서 소위 ‘필사즉생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명량해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의미일 것이다.